

음악으로 순국 선열의 혼 기리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시립합창단이 오는 27일 ACC에서 '기억과 희망' 특별기획연주회를 연다. 왼쪽부터 임창은 상임지휘자와 합창단원들의 모습.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광주시립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기획연주회 27일 ACC 예술극장2 가브리엘 포레·베토벤 등 합창곡으로 기억과 위로의 메시지 전달

현충일(6월 6일)과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결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전쟁과 분단의 아픈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 그 고귀한 발자취를 되새기며 음악으로 기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이 '호국보훈의 달 기념 특별기획연주회'를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펼친다.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의 주제는 '기억과 희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오늘의 평화를 되새기고 내일의 희망을 그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무대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적 연대의 장으로 꾸며진다. 시립합창단과 함께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학생들, 그리고 오케스트라 카메라 타전남이 협연에 나선다.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박은식, 바리톤 공병우, 소프라노 김지나가 참여해 무대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짧은 음악 도들과 숙련된 전문 연주자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는 예술성과 헌정의 의미를 고루 갖춘 공연으로, 호국보훈의 정신을 더 깊이 있게 관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의 서막은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 D단조, Op. 48'이 연다. 이 곡은 전통적인 진혼곡과는 달리 죽음을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식으로 받아들이는 작곡가의 시선이 담긴 작품으로, 청중에게 차분한 위로를 건넨다. 특히 '피에 예수(Pie Jesu·자비로운 예수)'와 '인 파라디숨(In Paradisum·천국에서)' 등의 악장은 빛과 위로로 가득 찬 선율로 청중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바리톤 공병우와 소프라노 김지나의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섬세한 음악은 순국선열의 넋을 달래고 그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진혼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지는 베토벤의 '합창 환상곡(Choral Fantasy), Op. 80'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합창

이 결합된 독창적인 구조로 베토벤 특유의 인류애, 자유, 예술에 대한 신념을 장중하게 풀어낸다. 솔리스트와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지는 하모니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기리는 장면으로 청중을 압도한다. 피아니스트 박은식의 섬세한 연주와 시립합창단의 조화가 어떤 울림을 자아낼지 기대를 모은다.

공연의 후반부는 한국적 정서와 메시지를 담은 창작 합창곡으로 구성된다. '다시 피는 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희생에 대한 예찬을, '내 나라 내 겨레'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의지를 노래한다.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마지막을 장식하며, 민족의 애환과 염원을 음악으로 승화시킨다. 전통의 선율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이 피날레는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길 것이다.

이정호 시립합창단 기획홍보담당은 "이번 연주회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나누는 무대"라며 "지역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이 무대가 많은 시민에게 울림을 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1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케팅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노동운동·오월항쟁 투사 김성애의 삶

전용호 작가 '그리운 5·18투사...' 발간...광주·서울서 출판기념회

광주여성노동운동 선구자로, 오월항쟁 투사로 활동했던 여성을 조명한 책이 최근 출간됐다.

전용호 작가가 최근 펴낸 '그리운 5·18투사 김성애·로스리아-광주여성노동운동 선구자로, 오월항쟁 투사로' (문학들)는 1970~1980년대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펼쳤던 김성애 씨의 삶을 담았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저자이기도 한 전용호 작가는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초중반까지 이 지역 노동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됐지만 알려진 것이 없었다"며 "김성애 씨를 비롯한 지역 노동운동을 펼쳤던 여성들의 활동사를 노동운동사라는 관점에서 제자리를 찾아주고 싶었다"고 발간 배경을 전했다.

또한 "이들 여성들이 5·18때 도청에서 시민군을 위해 취사활동을 많이 했다. 이후 노동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역 노동운동사에 거의 기록이 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삶을 지역 노동운동사와 연계해 기록하자는 취지로 책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인공인 김성애(로스리아)는 1956년 광주 중흥동에서 태어났으며 1972년 호남전기공업회사에 노동자로 취업 후 1975년 JOC(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이 된다. 이후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부녀부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김성애는 교육문화사(이광), 녹두서점(김상운), 노동운동가(이양현), 송백회(이운정, 정유하, 임영희), 광주민청학련(정상용 외) 등 지역 민주화운동 단체 및 인사들과 연대해 활동했다.

1979년 11월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JOC 상근자로 활동하다 1980년 5·18이 발발하자,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참여한 남동성당 김성용 신부님으로부터 도청 내 취사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

고 JOC회원들을 취사원으로 참여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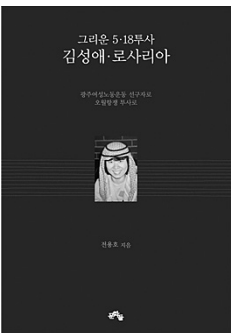
이후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과 광주 시내를 장악하자 김성애는 변장을 하고 서울로 피신했다. 서울에서 '로스리아'라는 이름으로 유인물을 제작해 광주항쟁을 증언한다.

자신을 쫓는 정보 경찰을 피해 과천 성모영보수녀원에서 피신했다가 정보당국의 수색이 잠잠해지자 80년 후반기에 광주로 내려온다. 그동안 서울에서 김성용 신부가 광주항쟁을 증언한 후 구속되고 가톨릭 노동문제상담소 정양숙(마리안나) 소장도 오월항쟁 증언 활동으로 서빙고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구속된 상황이었다.

김성애는 광주에 내려 온 후 JOC 상근자로 지역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1983년 2월, 광주 출신으로 1974년 서울대 민청학련과 80년 5·18 유인물 사건으로 2차례 투옥 후 서울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임상택과 결혼한다. 결혼 후 서울로 올라가 민주화운동가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다 1994년 1월, 교통사고가 발생해 김성애와 두 딸이 현장에서 사망한다. 임상택은 보름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난다.

김성애는 1993년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 신청으로 유공자가 됐으며 가톨릭 장지에 매장된 후, 2014년 3월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 이장됐다.

한편 출판기념회가 광주에 이어 오는 27일 서울 문화공간 온(정려 27, 통일빌딩 3층)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소년 74명 진로 프로젝트 여정 공유

공간건축 등 8개 부문 제작 과정 설명...8월부터 새 참여자 모집

"영화제도, 소설집도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한 학기 동안 자신만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도전해온 광주 청소년들이 그 여정을 공유하는 특별한 자리를 열었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삶디센터)가 주관하고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이 협력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결과공유회'가 지난 7일 열렸다. 청소년 74명이 주체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프로젝트의 결실을 발표하고, 전시로 선보이는 자리였다.

공간건축, 영화제 기획, 단편소설 창작, 미디어아트 등 8개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간씩 삶디에 모여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팀별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해왔다.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어진 이 활동은 단순한 진로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배우며 만들어가는 창의적 탐색의 시간이었다.

결과공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는 단편소설, 비건 베이킹, 영화비평, 심리 프로젝트

트 등 네 팀이 무대에 올라 그간의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 특히 '단편소설 창작과정'의 경우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쓴 작품을 낭독하며 소설집 제작 과정을 소개했다.

2부는 전시로 이어졌다. 영화제 기획, 포트폴리오 제작, 공간건축, 미디어아트팀이 각각의 작업물을 설치해 관람객을 맞았다. 전시 참여자들은 직접 도슨트가 되어 작품에 얹힌 고민과 창작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달 31일 개최된 '파레트 영화제'의 전 과정을 담은 전시에서는 포스터, 기획안, 큐리스트 등이 나란히 놓이며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영화제 팀에 참여한 이승아 양(광주송원여상·19)은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 손으로 진짜 영화제를 열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다"고 웃었다.

한편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는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해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 서울서 개막 D-100일 붐업 행사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이 지난 8일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 100일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한 붐업 행사가 성료됐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수목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특별 포토부스가 설치돼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포토존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며 수목의 매력을 체험한 시민들은 "수목이 이렇게 세련되고 감각적인 줄 몰랐다"며 큰 호응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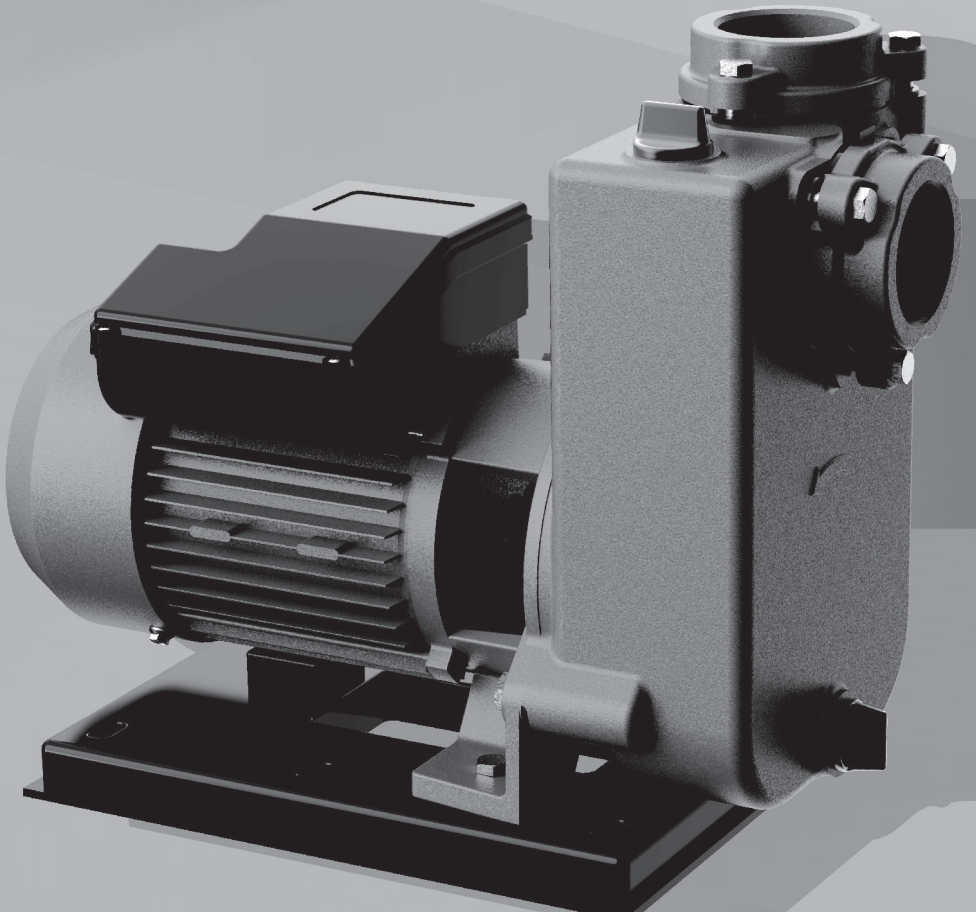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현장에서는 비엔날레 홍보부스도 함께 설치돼 전시 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자료, 기념품이 증정됐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MZ세대들



의 참여가 두드러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 대한 수도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편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을 중

심으로 펼쳐진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전통 수목의 깊이와 현대 수목의 확장을 담아내며, 세계적인 수목 예술 축제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